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월 22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(044-203-4040), 송정훈 사무관(044-203-4042)

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 증가, 상위 50대 수출기업 비중 감소

- 중소·중견기업 수출 4.4% 증가, 대기업 수출 0.5% 증가 ('13.1~11월) -

□ '13년 우리나라는 '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돌파, 수출 및 무역흑자 사상 최대'라는 무역 3관왕(Triple Crown)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, 질적으로도 수출구조가 건실화 되었음

* '13년 실적 : (수출) 5,596억달러, 2.1% 증가 (수입) 5,156억달러, 0.8% 감소 (무역흑자) 441억달러

○ 특히, 중소·중견기업이 우리 수출회복을 주도한 점과 수출품목 다변화는 '13년 우리 무역에서 주목한 만한 내용

① **(中企 수출확대)** '13.1~11월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은 4.4%로 대기업(0.5% 증가)을 크게 상회하며 우리 수출 회복세를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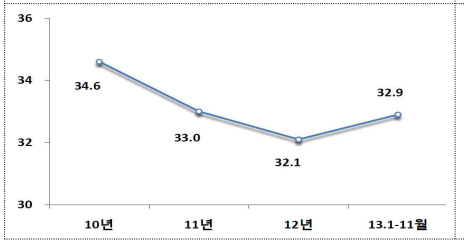
-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도 상승세로 전환

*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(%) : ('10년) 34.6 → ('11년) 33.0 → ('12년) 32.1 → ('13.1~11월) 32.9 (잠정)
('12년 이후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청의 '12년 기업 분류 기준에 따른 통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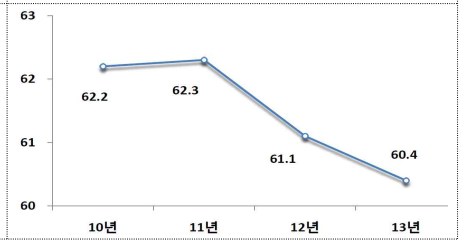
- 또한, '10년 이후 수출 상위 50대 기업의 수출비중이 다소 하락하는 등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완화되는 추세

* 수출상위 50대 기업 수출비중(%) : ('10년) 62.2 → ('11년) 62.3 → ('12년) 61.1 → ('13년) 60.4

<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 (%) >



< 수출 상위 50대 기업 수출비중 (%) >



② **(수출품목 다변화)** 새로운 수출 효자품목의 등장으로 우리 수출 주력품목의 비중이 지속 하락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

* '13대 주력 수출품목 비중(%) : ('11년) 80.3 → ('12년) 79.0 → ('13년) 78.8

- 염료및안료(24.5%↑)·화장품(24.4%↑)·경보신호기(15.6%↑)·플라스틱제품(11.7%↑) 등 새로운 효자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

□ 정부는 우리 수출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,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집행해 나갈 계획임

① **(무역금융 지원)** 기업의 환위험 대응력 강화와 新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

* 중소·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실적 : ('12년) 8,261개사, 29.5조원 → ('13년) 11,827개사, 35.9조원
* '14년 중소·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목표는 40조원으로, 전년대비 11.4% 증가

② **(마케팅 지원)**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 첫걸음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확대 지원

* '13년 수출 첫걸음 사업을 지원 받은 내수기업 267개사 중 65개사(24.3%)가 첫 수출 달성

③ **(FTA 활용확대)** 우리 수출증가에 기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FTA 활용확대를 위해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도 제고방안 추진

* 중소·중견기업 FTA 활용률('12년→'13년,%) : (한미 FTA) 59.4→69.2 (한EU FTA) 73.5→76.4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송정훈 사무관(☎ 044-203-40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